

카토킹?

카톡, 상호동의 하에 무제한 '실시간 위치 공유' '귀가 확인 안심' vs '감시·통제 우려' 갑론을박

“퇴근했다더니, 1시간째 회사 근처네?” 직장인 이인선(여·29·광주시 서구 쌍촌동) 씨는 퇴근 후 회사 인근에서 소핑을 하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이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남자친구가 새로 생긴 카카오톡의 '친구 위치' 기능을 확인한 뒤 연락한 것이다.

해당 기능이 새로 생겼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상호 동의 후 위치 공유를 설정해 놓았지만 이후 남자친구는 이씨의 이동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동의하고 재미 삼아 해봤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채린(여·30·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하교 시간이 늦을 때마다 “지금 어디쯤이야”고 묻던 걱정이 줄었다. 그는 “위치를 확인하는 앱이 있지만 카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안심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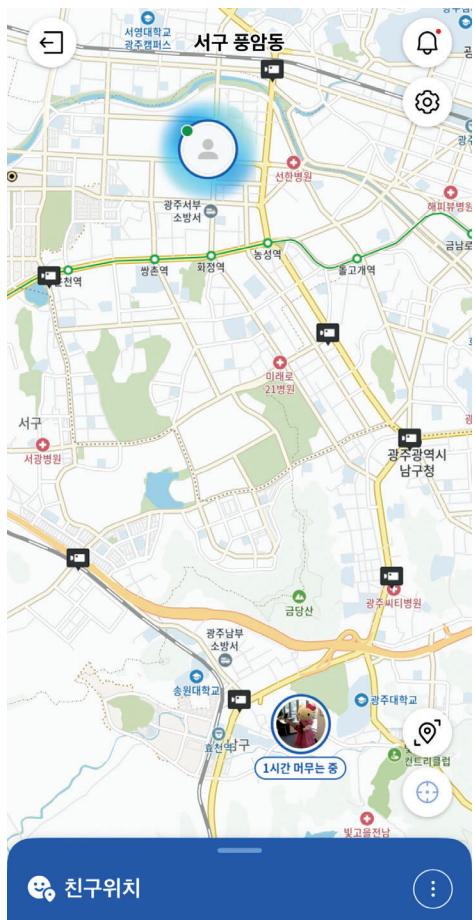
카카오의 새로운 '친구 위치' 기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카카오톡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특 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를 '친구 위치' 기능으로 업데이트했다.

2019년 출시된 특 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는 카카오톡 친구끼리 동의하면 15분, 30분, 1시간 등 제한된 시간 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친구 위치' 기능은 시간 제한 없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위치 공유를 종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능 자체는 약속 장소 찾기, 자녀 귀가 확인 등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카카오톡 설명이지만 사생활 침해와 감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해 '감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가족 간에는 긍정적 반응도 나온다. 또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30·40대 자녀들도 안



카카오 '친구 위치' 공유 화면. <카카오톡 캡처>

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논란이 된 적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악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위치 공유 경계 설정'이라는 문화까지 확산했다. 일본에서도 연인끼리 감시 도구로 악용되는 현상이 문제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삼아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규명 자료 비공개하나

시 “감리·시공사 요청 따라 보류…법적 분쟁 우려 이유로 검토 중”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리, 시공사 등이 감리보고서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를 ‘비공개’ 해달라고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제3자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소송에 걸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료들을 비공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안전관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감리·시공사 등 제3자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자료들이 생산자가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비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광주시는 “정보 공개를 비공개 결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서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정보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르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내놓은 비공개 요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학동참사 당시에도 광주시 서구, 동구에 보고된 분기별 감리 업무보고서, 건축물 철거공사계획서 등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는 한법재판소 판례도 적혀 있다.

해당 정보들이 영업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 사고로 이미 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진상 규명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으로 따진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데, 영업 비밀 등을 가리고 ‘일부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비공개 방식만 논의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감리나 시공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광주시가 보일 태도 아니다”며 “발주자인 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게 두려워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초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오는 24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분주한 산타 2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물레산타 대작전 행사에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역 한부모 가정에 전달할 담요, 문화상품권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비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 사이 5~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를 보이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5~9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2~3도, 낮 최고기온은 3~6도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2도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 빙판길이 예상되니 차량 운행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철도노조, 오늘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조가 2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장기 화월 경우 이용객들이 많은 연말이라는 점에서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잠정합의로 한 차례 유보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노조는 그동안 성과급 산정 구조 자체가 15년 동안 차별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0년 임금체계 개편 시기 차이로 철도노동자들은 타 공기업과 달리 성과급 산정에서 불리

한 기준을 적용받아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임이 확인됐고 국토부도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는데 기재부가 90%라는 변칙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난 10일에도 정부의 ‘정상화’ 약속을 믿고 파업을 유보한 만큼 타 공기업과 달리 기본급의 80%로 제한됐던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전국 기준으로 2만 2000여명의 조합원 중 필수 유지 인력 1만2000여명을 제외한 1만명 규모로 예상된다.

호남에서는 27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 유지 인력 1200여명을 제외한 1500여명 중 12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있다.

노조는 23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에 맞춰 광화문 동화면 세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 성과급 지급 관련 안전을 상징, 논의한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따라 “파업 시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

사랑과 감사의 71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 12. 29.(월) ~ 31(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인 문 사 회	신 학 과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 범	유아교육과
	음 악 학 부
예 능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58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국가)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민간)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5. 12. 29(월) ~ 31(수) · 전 형 일: 2026. 1. 9(금)

www.kwangshin.ac.kr